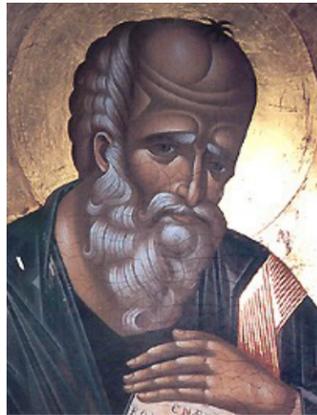


## 기독교정보

칼럼 + 교회 상식 + 문화 산책

### 기획시리즈-성인 열전 2

## 예수님이 사랑한 사도 요한 St. John(사도 요한)



성인명	사도 요한 (St. John)
축일	12월 27일
성인구분	성인
신분	사도, 복음사가
활동지역	Unknown
활동연도	100년 경
같은이름	얀, 요안네스, 조반니, 요한네스, 이반, 장, 장, 존, 존, 지오반니, 조안네스, 조한네스, 한스, 후안

요한은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겼으며 예수님의 십자가 형상까지 따라간 유일한 제자였다.

'에페소 교회 천사에게 이 글을 써서 보내어라. 오른손에 일곱 별을 쥐시고 일곱 황금등경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 말씀하신다'(요한묵시록 2,1)

다도해로 불리며 400여개의 섬들이 몰려 있는 터키 서부 지역의 에게해는 일찍이 트로이, 베르가모, 에페소 등 고대 도시들의 유적이 살아 숨쉬는 곳이다. 이 지역에는 성서의 요한묵시록에 나오는 일곱 등경, 곧 일곱 개의 교회가 몰려 있는 곳이기도 하다. 그 중 인구 300만명의 에게해 최대 도시 이즈미르에서 80km 가량 떨어진 곳에 로마의 소아시아 행정수도이자 교통의 중심지였던 고대도시 에페소가 숨쉬고 있다.

이 에페소에서 예수로부터 각별한 사랑을 받았던 사도 요한이 공동체를 세우고 주교들을 임명했으며 복음서와 서간들을 저술했다. 요한 사도는 이곳을 거점으로 해서 묵시록에 기록된 일곱 개의 지도적인 교회들을 이끌었다. 그리고 그가 이곳에서 사망한 뒤 4세기경부터 주요 순례지 중의 하나가 됐으며 6세기에는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명에 의해 요한의 무덤터에 6개의 돔과 130m 길이의 십자가 모형으로 된 거대한 교회가 세워졌다고 한다. 지금은 비록 폼페이 유적과 마찬가지로 몇 개의 건물벽과 기둥, 받침대 등만이 남아있을 뿐이어서 그 흔적을 알아보는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는 요한 사도와 성모 마리아, 그리고 사도 바오로 등 초대 교회 중대 인물들의 삶이 배어 있기에 아직도 많은 이들이 이곳을 찾아오고 있다.

사도 요한은 예수의 열두 제자 중 한 사람으로 제베대오의 두 아들 가운데 동생이다. 전승에 의하면 신약성서의 제4복음서와 묵시록, 3편의 편지를 쓴 저자이다.

부친의 업을 따라 겐네사렛 호수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 요한에게 어느날 예수가 찾아왔다.

『예수께서는 거기서 조금 더 가시다가 이번에는 제베대오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형제를 보셨는데 그들은 자기 아버지 제베대오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부르시자 그들은 곧 배를 버리고 아버지를 떠나 예수를 따라갔다.』(마태 4, 21~22)

예수의 제자가 된 후 요한은 친형 야고보, 베드로와 함께 예수가 가장 가까이 두는 제자가 됐다. 그리하여 요한은 예수의 공생애 예수의 제자가 된 후 요한은 친형 야고보, 베드로와 함께 예수가 가장 가까이 두는 제자가 됐다. 그리하여 요한은 예수의 공생애 내내 예수를 가장 가까이에서 섬겼으며 요한복음서에서 자신을 소개할 때에도 감히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요한 21, 7)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에 대한 예수의 사랑은 극진했다.

예수는 요한과 야고보 두 형제를 「천둥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보아네르게스」라고 불렀다. 그것은 아마도 자신들이 사랑하는 예수가 사마리아의 한 동네에서 냉대를 받자 「주님, 저희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여 그들을 불살라 버릴까요?」(루가 9, 54)라고 분개할 만큼 격렬한 성품을 지녔기 때문인 듯하다.

그 뜨거운 사랑으로 요한은 예수의 십자가 형상까지 따라간 유일한 제자였다. 그리하여 요한은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예수로부터 「이분이 네 어머니시다」(요한 19, 27)라는 당부를 받아 성모 마리아를 위탁받고 자기 집에 모셨다.

예수가 부활해 승천하신 뒤, 요한은 베드로 사도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활동하면서 초대 교회의 건설과 복음 선포에 힘썼다. 바오로 사도는 요한이 베드로, 야고보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의 중추적 인물로 49년에 예루살렘 사도회의에 참석한 사실도 전해주고 있다. 하지만 그 후 요한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록이 없으며 파트모스(Patmos)섬에서 유배생활을 하면서 묵시록을 저술했다는 사실만 알 수 있다. 다만 전승에 의하면 요한이 예루살렘을 떠나 에페소로 간 것은 분명해 보인다.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 때 체포돼 유배되기 전까지 에페소에 머물러 있었고 유배 후에는 다시 돌아와서 서간과 복음서를 저술했다고 한다.



조반니 벨리니, 「죽은 그리스도를 부축하고 있는 성모님과 사도 요한」 1460, 86x107cm, 브레라 미술관, 밀라노.

요한이 저술한 것으로 전해지는 묵시록은 신약성서의 마지막 책이며 유일한 묵시 문학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이 묵시록에서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영광과 악의 세력에 대한 승리에 큰 관심을 둔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승리는 이미 역사 안에 와있지만 그 공동체의 승리는 아직 오지 않았다. 따라서 묵시록은 역사에 대한 그리스도교적 신학서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미 완전한 승리를 거두신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의 공동체 역시 결국은 승리를 얻게 될 것임을 확신한다. 결국 묵시록을 통해 요한 사도는 교회를 위한 희망을 보여주며 그것은 곧 역사를 그리스도의 우리에 대한 사랑의 현시로 제시하는 것이다.

요한 사도를 일러 혹자는 사랑의 사도로 부른다. 신약성서에서 「사랑」이라는 말이 등장하는 구절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사도 요한이 집필한 것으로 전해지는 요한복음, 요한의 편지 세 권, 그리고 요한묵시록이다. 이 5편에 나오는 사랑이 모두 92번으로 신약성서에 나오는 사랑의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 복음서에서도 요한복음은 총 39번이나 나와 마태오 12 번, 마르코 6번, 루가 13번과 비교해봐도 뚜렷하게 차이가 난다.

자기 중심적이고 급하고 격렬한 성격에,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모진을 통해 높은 직책을 부탁할 정도로 개인적 야심에 빠져있기도 했던 요한 사도가 이처럼 사랑의 사도로 변모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힘입은 결과일 것이다.

[기독교신문, 2004년 4월 25일, 박영호 기자]

사순  
제 5주일

2023년  
03월 26일

미사 시간 안내

평 일 (영어미사)  
화요일-7:00 PM  
수 ~금-9:00 AM  
주일(한국어/영어 미사)  
토(특전/영어)-4:00PM  
일요일(영어)-9:00AM  
(한국어)-11:30AM

사무실 안내

주소: 122 High Street  
South Bound Brook,  
NJ 08880

#Tel : 732-356-1037  
#Email: office@edisonkcc.org  
근무시간: 화-금요일  
(10AM~3PM)

에디슨한인천주교회

주임신부  
이용범 사도요한

본당부제  
윤석로 이냐시오

평협회장  
채희백 바오로



에디슨한인천주교회  
OUR LADY OF MERCY PARISH



렘브란트(Rembrandt 1606-1669), <라자로의 부활>, 1630년경, 동판화, 36.6x28.8cm, 암스테르담 렘브란트 하우스, 네덜란드

### < 이번 주 전례안내 >

- # 제 1독서 에제키엘 예언서37,12ㄹ-14
- # 화답송 시편 130(129),1-2,3-4,5와 6ㄴㄷ-7ㄱ,7ㄴㄷ-8(◎ 7ㄴㄷ)  
◎ 주님께는 자애가 있고 풍요로운 구원이 있네.
- # 제 2독서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8,8-11
- # 복음 환호송 ◎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요한 11,25,26 참조)  
○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 # 복음 요한 복음11,1-45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 에디슨 한인 공동체에 새로 오신 분, 오랜만에 오신 교우들 환영합니다!**

**✿ 미사지향 (연미사)**

- 권숙자(요안나) - 최종인(세레나), 이대우(베드로) 가족
- 이석종(스테파노) - 가족
- 추성태(바오로) - 가족
- 김진철(요한) - 가족
- 김경희(수산나) - 가족
- 김명자(헬레나) - 가족
- 이규호 - 가족
- 이창익(이냐시오) - 육 글라라 가족
- 김상기(요셉) - 가족
- 양순조, 조고만 - 양영길(그레고리오) 가족
- 신동우(야고보), 임경자(막달레나) - 임 안나
- 김영래, 김길수(베네딕도) - 가족
- 이광선(베드로) - 이 이레네

**✿ 미사지향 (생미사)**

- 염은미(클라라) - 가족
- 김종숙(마리아) - 민 엘리자벳
- 김정민 가정 - 김정이(레지나) 가족
- 이종민(예비자 미카엘), 김진희(아우렐리아), 이에원(김벌리 테오도라) - 가족
- 박락준(베드로) - 한상철(빈첸시오) 가족
- 황선주(요셉피나) - 송진영(마리스텔라), 이서형(요안나)
- 피스브릿지 구역 가정 - 채희백(바오로)

**✿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 주일 헌금 (158명).....\$1,607
- 교무금.....\$1,900
- 안을봉(1-5)    이호용(2-3)    한상철(3)
- 서정근(3-4)    오현주(3-4)    이광호(3-4)
- 김성일(2-3)
- 감사헌금.....이종실 (\$200)

**✿ 2023 Bishop's Annual Appeal (Renewed and Sent on Mission by the Eucharist)**

- 2023년 목표금액은 \$37,000입니다. 목표금액 달성시 초과금의 50%는 본당으로 귀속되며 3/17까지 약정 금액은 \$17,680.14 (목표금액의 47.78%)입니다.
- 메타천 교구내의 사목, 교육, 자선활동을 지원하는 2023 Bishop's Annual Appeal 에 많은 성원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이번 주 본당 관리 유지 현황**

- 성모동산 전등 추가 설치 및 화초 식재
- 친교실 주방 스토브 정리 완료
- 친교실 주방 싱크대 배수구 뚫기(주방과 싱크대를 깨끗이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당 제단, 제구 세척
- 친교실 천장 전등 교체 작업 진행중
- 감사합니다.

**✿ 2차 헌금**

- 3월 26일: 부활절 꽃 장식
- 4월 2일: 교구청 주관 은퇴 사제 및 수도자를 위한 헌금

**✿ 성당 건물 관리를 위하여, 주일 한국어 미사 후에는 엘리베이터 문을 제외한 모든 출입문을 밖에서 잠글 예정이오니 미사 후 성당 출입은 가급적 엘리베이터 문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2023년 4월 매일 미사책을 신청하신 분은 성당 입구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 부활판공**

- 성주간 수요일(4/5)까지 매 미사 전에 본당 신부님께서 판공성사를 주십니다. 고백소 앞에 비치된 판공성사표를 작성하시어 수거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 사순시기 십자가의 길 기도 안내**

- 3/26 (주교님 방문) 과 4/2(성지 주일)은 십자가의 길 기도를 개별적으로 바쳐주시기 바랍니다.

**✿ 레지오 마리아 아치에스 행사**

- 일시 및 장소: 3월 26일(주일) 미사 후 오후 1시 성당
- 레지오 마리아의 가장 중요한 연중행사로서, 협조단원분들과 레지오에 관심 있으신 모든 교우분들을 초대합니다.

**✿ 기획분과회의 안내**

- 일시 및 장소: 4월 2일(주일) 미사 후 친교실

**✿ 성당 화단 가꾸기 봉사**

- 봄철 성당 주변 화단 가꾸기 봉사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과 나무 및 꽃 구매 후원을 해 주실 분들은 사무실 또는 유용희(율리아나) 자매님께 연락 바랍니다.

- 개별 식수도 접수하오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사무실로 연락바랍니다.
- 매년 꽃밭 가꾸기 봉사에 참여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미동북부 M.E. 제 79차 부부주말**

- 일시: 2023년 5월 27일(토) 오후 7시-29일(월) 오후 5시
- 장소: 뉴욕 롱아일랜드 헌팅턴 신학교
- 참가 신청서는 사무실로 문의 바랍니다.
- 성당 입구 포스터 참고 바랍니다.

**✿ WYD 세계 청년대회 리스본 및 파티마 성진순례**

- 일시: 2023년 7월 30일 - 8월 7일 (8박 9일)
- 참가비: \$2,750+항공료 (15명 선착순)
- 지도 신부: 조민현 요셉
- 문의: 평화의 모후 선교회 Queen of Peace Missionary 917-301-0219 / Email qpmm81@gmail.com
- 성당 입구 포스터 참고 바랍니다.

**✿ 미 동북부 레지오 마리아 주관 과달루페 성지 순례**

- 일시/장소: 2023년 10월 10일(화)-13일(금), 멕시코 과달루페
- 인원: 선착순 25명      • 신청마감: 2023년 6월 30일까지
- 지도신부: 장재명(파트리치오) 신부
- 참가비 \$1,700 (3박4일, 항공료 및 Tip 포함)
- 접수 및 문의: 채미영(테레사) 꾸리아 단장

**✿ 환우들의 빠른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정영철(프란치스코)      하건철(안토니오)
- 오용덕(헨리코)      오경선(원선시오)
- 염은미(클라라)      하준석(마테오)
- 곽 율리안나      방진숙(테레사)

**✿ 요한 복음 11,1-45**

그때에 마리아와 그 언니 마르타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주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가 병을 앓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이르셨다. “그 병은 죽을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 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서는 마르타와 그 여동생과 라자로를 사랑하셨다. 그러나 라자로가 병을 앓고 있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르셨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런 뒤에야 제자들에게, “다시 유다로 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가서 보시니, 라자로가 무덤에 묻힌 지 벌써 나흘이나 지나 있었다. 마르타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고, 마리아는 그냥 집에 앉아 있었다. 마르타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청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들어주신다는 것을 저는 지금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 마르타에게, “네 오빠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시니, 마르타가 “마지막 날 부활 때에 오빠도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 마르타가 대답하였다. “예, 주님! 저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메시아시며 하나님의 아드님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마음이 북받치고 신란해지셨다. 예수님께서 “그를 어디에 묻었느냐?” 하고 물으시니, 그들이 “주님, 와서 보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께서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보시오, 저분이 라자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몇몇은,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해 주신 저분이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해 주실 수는 없었는가?” 하였다. 예수님께서서는 다시 속이 북받치시어 무덤으로 가셨다. 무덤은 동굴인데 그 입구에 돌이 놓여 있었다. 예수님께서 “돌을 치워라.” 하시니,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타가 “주님,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벌써 냄새가 납니다.” 하였다. 예수님께서서 마르타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자 사람들이 돌을 치웠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말씀하셨다. “아버지, 제 말씀을 들어 주셨으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언제나 제 말씀을 들어 주신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여기 둘러선 군중이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큰 소리로 외치셨다. “라자로야, 이리 나와라.” 그러자 죽었던 이가 손과 발은 천으로 감기고 얼굴은 수건으로 감싸인 채 나왔다. 예수님께서서 사람들에게, “그를 풀어 주어 걸어가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마리아에게 갔다가 예수님께서서 하신 일을 본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 제1독서: 예제키엘 예언서 37,12-14**

주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 이제 너희 무덤을 열겠다. 그리고 내 백성아, 너희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겠다. 내 백성아, 내가 이렇게 너희 무덤을 열고, 그 무덤에서 너희를 끌어 올리면, 그제야 너희는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 안에 내 영을 넣어 주어 너희를 살린 다음, 너희 땅으로 데려다 놓겠다. 그제야 너희는, 나 주님은 말하고 그대로 실천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 제2독서: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8,8-11**

형제 여러분, 육 안에 있는 자들은 하느님 마음에 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사시기만 하면, 여러분은 육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게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있지 않으면, 그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몸은 비록 죄 때문에 죽은 것이 되지만, 의로움 때문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생명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사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사시는 당신의 영을 통하여 여러분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